

'주민·상인 갈등' 광주 동명동, 해법 찾나

분쟁조정자·법률가 참여 상생협의회 구성 추진

내년 봄 협약 목표... 숙의과정 거쳐 대안 마련

광주의 경리단길로 불리는 동구 동명동에 방문객이 몰리면서 주민과 상인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오랜 세월 살아온 주민과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은 상인 간의 반목을 끝내도록 자치구가 중재자를 자임해 해법이 나올지 주목된다.

4일 동구에 따르면 연내 출범을 목표로 전문가 집단, 주민과 상인 대표자가 참여하는 동명동 상생협의회 구성이 추진된다.

고급주택과 오래된 한옥이 혼재된 동명동은 원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침체에 빠

졌으나 최근 몇 년 사이 낡은 주택을 개조한 카페와 식당, 문화공간으로 활기를 되찾았다.

광주의 '핫플레이스'로 떠올라 방문객이 모여들면서 불법주차, 쓰레기 투기, 소음과 흡연 공해로 주민 불편이 제기됐다.

임대료 상승과 상권 인프라 부족으로 동명동에 터를 잡은 상인들 불만도 상당하다.

갈등을 대책위나 상인회 등 주체마다 중심점을 갖출 틈조차 없이 주민과 방문객, 기존과 신규 상인 간 대립으로까지 확

산했다.

동구는 갈등을 봉합하고자 고심했으나 제도적 한계, 인력과 재정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직접 해결책을 찾는 대신 주민과 상인 목소리를 두루 모아 합의점에 다가감도 동구는 협의회 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분쟁조정 능력과 법률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동명동 상권을 일군 1세대 상인과 주민 목소리를 대변할 마을 인사 등 양측 대표자도 협의회에 참가하도록 설득하기로 했다.

위원 구성을 마치고 협의회가 출범하면 현장점검과 온·오프라인 조사를 다양한 입장이 담긴 의견을 모은다.

이후 숙의 과정을 거쳐 대안을 제시하고, 조정을 통해 최종 의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주민과 상인 모두 만족하는 상생방안을 완성하면 협약서를 작성한다.

협약이 이뤄지고 나면 점검 모니터링단을 꾸리고 매주 활동 보고서를 작성해 이행을 이어간다.

동구는 내년 2~3월 상생협약서 작성을 목표로 동명동 현장 홍보와 기초조사 설문지 설계에 착수했다.

또 그간 갈등사례를 전수 조사해 협의회 활동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모을 예정이다.

동구 관계자는 "공감대 없이 마련한 협약은 말뿐인 선언에 그칠 우려가 크다"며 "성패 관건은 주민과 상인 참여인데 상생

을 향한 진정성으로 꾸준히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서기만 기자 ghszk@

엄마 찾아 모국 찾은 입양아

경찰 도움으로 35년 만에 상봉

"저를 낳아 준 엄마를 찾고 싶어요" 지난달 31일 독일 교포 남성 A씨가 파란 눈의 노부와 함께 광주 남부경찰서 현관문을 쭈뼛거리며 들어왔다.

한국말을 전혀 하지 못하는 A씨는 자신을 돕고 있던 모 사회복지법인 원장을 통해 딱한 사정을 경찰에 설명했다.

A씨는 1983년 3월 광주의 한 병원에서 누구의 촉복도 받지 못한 채 태어났다. 당시 18살 미혼모였던 A씨의 어머니 B씨는 임신 사실을 알고 절망

에 빠졌다.

어린 나이에 혼자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던 B씨는 아이를 지우려고 마음먹었다가 미혼모 지원 시설 관계자의 끈질긴 설득과 권유로 결국 해외

입양을 보내기로 했다.

그렇게 35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양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친모에 대해 그리움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A씨는 그 그리움 하나로 양부모님과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안준석 경위 등 남부서 실종전담팀원들이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었지만, 그의 딱한 사정을 모르는 척할 수가 없었다.

팀원들은 실종 사건을 해결하던 노하우를 십분 활용해 A씨가 태어난 병

원 원무과 자료와 입양 당시 작성했던 입양카드, 경찰 정보망의 신원조회 등 단서가 밀만한 모든 자료를 샅샅이 뒤졌다.

어렵사리 B씨가 사는 곳을 찾아 B씨와 접선하는 데 성공했지만 B씨는 냉정할 정도로 단호하게 만남을 거절했다.

현재 가정을 꾸리고 화목하게 살고 있는데 가족들이 입양 사실을 알게 되면 큰 충격을 받을 것이라는 이유였다.

그러나 피는 물보다 진해서였을까, 경찰이 다녀간 그 날 밤 고민에 고

민을 거듭한 B씨는 다음날 마음을 고쳐먹고 A씨를 만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았다.

귀국을 준비하다 경찰의 연락을 받고 한결음에 달려온 A씨를 본 순간, B씨는 앞으로 쓰러지듯 무릎 꿇고 "미안하다"며 오열을 터트렸다.

A씨는 그런 어머니의 두 손을 맡았이 꼭 잡아주었다.

이 과정을 모두 지켜본 안 경위는 "어린 나이에 먼 이국땅으로 떠나야 했던 A씨의 사연을 듣고 너무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며 "과정은 어려웠지만, 두 사람이 상봉해 목은 상처를 치유한 것 같아 뿌듯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jin2001@

너울성 파도 침몰·기관 고장

해경, 어선 구조 잇따라

전남에서 파도에 침몰하거나 기관 고장으로 표류 중이던 어선이 잇따라 구조됐다.

4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22분께 고흥군 도화면 대포항 인근 해상에서 0.5t급 무등록 선박이 너울성 파도로 침몰해 선장 A(82)씨가 바다에 빠졌다.

때마침 근처를 지나던 1.33t급 어선 선장 B(62)씨가 A씨를 구조하고 해경에 신고했다.

전날 오후 2시 32분께는 완도군 장도 인근 해상에서 5명이 탄 2.24t급 연안자망 어선이 기관 고장으로 표류한다는 신고가 해경 상황실에 접수됐다.

완도해경은 연안 구조정을 급파해 어선을 예인했으며 선원 모두 안전하게 구조했다.

/윤규진 기자 jin2001@



광주시, 승강기 갑툭상고 대응훈련

광주시는 최근 시청사에서 승강기 중대고장 발생 시 초동 대처능력 제고와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승강기 갑툭상고 훈련 '2018 재난대응 안전광주훈련 승강기 갑툭상고 대응훈련'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시청사 1층 엘리베이터(2호기)에서 훈련에 참석해 시연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장난감 정리 왜 안 해" 아이 머리채 잡아

아동 폭행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징역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만 아동을 수십차례 폭행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1심에서 징역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남준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 위반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58)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30일부터 6월 20일까지 광주 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81차례에 걸쳐 만 2세인 아동 7명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낮잠 자는 시간에 자지 않거나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손으로 아이들의 다리를 때리거나 서 있던 아이를 잡아당겨 넘어지게 했다.

장난감 정리를 하지 않았다며 2세 여아

의 머리채를 잡아끌거나 간식을 넣어줬는데 빨았다며 2세 남아의 입을 밀어 넣어뜨리기도 했다. 말을 듣지 않거나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아이들의 뺨을 손으로 1~2회 때린 적도 있었다.

박 판사는 "아이들을 돌봐야 할 보육교사가 오히려 괴롭혔다.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아동의 부모나 보호자와 모두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윤규진 기자 jin2001@

여수서 한밤중 악취 신고...당국 조사

200여건 신고 접수

뚜렷한 원인 못찾아

여수에서 200여건의 악취 신고가 접수돼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4일 여수시와 전남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16분께부터 여수시 미평·봉계·둔덕·중흥동 일대에서 악취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여수시에는 "플라스틱 타는 냄새가 난다"는 등의 신고가 30여건, 전남소방본부에는 160여건이 접수됐다.

여수시와 소방당국은 화학물질로 인한 냄새로 추정하고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화학 공장 3곳을 확인했으나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했다.

신고가 집중된 지역이 산단에서 6~8km가량 떨어져 있었으며 바람 방향이 달라 악취가 시작된 곳을 특정할 수 없었다.


해당 공장들은 보수를 위해 공정을 중단하고 '셧다운(Shut down)' 중이었다.

셧다운 기간 배관에 있는 잔류가스를 내보내면서 일부 공정에서 연기가 나기도 하지만 악취와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한 공장에서는 배관 청소 과정에서 가스 냄새가 나기도 했지만 지난달 29일부터 작업이 시작된 데다가 냄새가 심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시는 전남도와 환경부 등과 함께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여수=오승택 기자 ost6002@




생명존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병원 에덴병원

최신 하이푸 도입- 자궁을 보존하는 자궁근종, 선근증 비수술치료
제 1회 임산부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한국 여성민우회 "아름다운 병원" 선정
전국병원 의료기관 중 부인과 수술비가 가장 낮은 1위 병원

진료과목

- 산부인과
- 내과
- 유방·갑상선외과
- 영상의학과
- 소아청소년과
- 임상병리과
- 건강검진센터



의료진안내

| | | | | | | | | | | | | | | | | | |
|-----|-------|-------|--------|--------|--------|-------|------|-----|------|------|------|------|------|------|------|------|------|
| 간행 | 통증의학과 | 통증의학과 | 소아청소년과 | 소아청소년과 | 소아청소년과 | 영상의학과 | 유방외과 | 내과 | 산부인과 | 산부인과 | 산부인과 | 산부인과 | 산부인과 | 산부인과 | 산부인과 | 산부인과 | 산부인과 |
| 호정 | 내과 | 내과 | 내과 | 내과 | 내과 | 내과 | 내과 | 내과 | 내과 | 내과 | 내과 | 내과 | 내과 | 내과 | 내과 | 내과 | 내과 |
| 과과 | 과과 | 과과 | 과과 | 과과 | 과과 | 과과 | 과과 | 과과 | 과과 | 과과 | 과과 | 과과 | 과과 | 과과 | 과과 | 과과 | 과과 |
| 사무 | 원장 | 원장 | 원장 | 원장 | 원장 | 원장 | 원장 | 원장 | 원장 | 원장 | 원장 | 원장 | 원장 | 원장 | 원장 | 원장 | 원장 |
| 부장 | 박정운 | 박정운 | 박정운 | 박정운 | 박정운 | 박정운 | 박정운 | 박정운 | 박정운 | 박정운 | 박정운 | 박정운 | 박정운 | 박정운 | 박정운 | 박정운 | 박정운 |
| 원장 | 김영민 | 김영민 | 김영민 | 김영민 | 김영민 | 김영민 | 김영민 | 김영민 | 김영민 | 김영민 | 김영민 | 김영민 | 김영민 | 김영민 | 김영민 | 김영민 | 김영민 |
| 부원장 | 김영민 | 김영민 | 김영민 | 김영민 | 김영민 | 김영민 | 김영민 | 김영민 | 김영민 | 김영민 | 김영민 | 김영민 | 김영민 | 김영민 | 김영민 | 김영민 | 김영민 |
| 의사 | 김영민 | 김영민 | 김영민 | 김영민 | 김영민 | 김영민 | 김영민 | 김영민 | 김영민 | 김영민 | 김영민 | 김영민 | 김영민 | 김영민 | 김영민 | 김영민 | 김영민 |

광주광역시 북구 면앙로 170번길 10 (두암동)
전화 260-3000 팩스 267-0550